

■ 프로축구 K-리그 개막...광주·전남 감독 출사표

“군인정신 무장...돌풍 지켜보라” “공격력 화끈...PO진출 할 터”

광주 상무 이강조 감독



“상무의 돌풍을 보여주겠다.”
 광주 상무가 ‘탈골째’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정규리그 14위로 시즌을 마감하며 4년 연속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지만 상무는 한층 두터워진 선수층을 앞세워 돌풍을 준비하고 있다.
 ‘탈골째’를 내건 상무 이강조 감독은 “올 시즌 수비수와 미드필더가 보강이 되면서 백업 선수들이 든든하고, 최성국·최원권 등 좋은 선수들이 가세했다”며 “신입선수들의 훈련 기간이 짧아 체력적인 문제 등 전력이 완벽치 않지만 시즌이 진행될 수록 무서운 팀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감독은 지난 시즌 환상적인 호흡으로 상무를 이끈 김명중과 고슬기의 지원속에 최성국 특유의 플레이와 재활중인 박규선의 움직임이 가세한다면 ‘탈골째’ 이상의 성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홈 구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의 시즌 첫 경기를 앞둔 이 감독은 “대전 공격수 박성호가 부상으로 결장이 예상되지만 젊은 선수들의 기동력이 좋아 미드필더에서의 움직임이 뛰어나

전남 드래곤즈 박항서 감독



“용광로 축구로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겠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내건 전남 드래곤즈 박항서 감독의 2009시즌 항해가 시작된다.
 7일 홈구장인 광양 전유구장에서 FC 서울을 맞이하게 된 박 감독은 “홈 개막전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상대가 우승후보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꼭 붙어야 하는 팀이다”며 “상대 미드필더진을 봉쇄하면서 한층 매서워진 공격진을 전면에 내세워 승리를 위한 승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지난 시즌 광태워, 고기우 등 주전 선수들의 졸업사속에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일정까지 소화해야 하는 등 고된 행군을 해야 했지만, 올 시즌은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발걸음이 가볍다.
 박 감독은 “지난해에는 시즌 초반에 부상 선수가 많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지훈련에서도 기초체력 훈련에 주력을 뒀고, 개막을 앞두고 정상 컨디션 유지를 위해 전문 체력 훈련을

생활 게시판

화확

▲김정준(광주시생활체육협의회장)· 임병준씨 장남 성민군 이재욱·김혜숙씨 차녀 예나양=14일(토) 오후 1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그랜드 불룸)
 ▲유전준·박영숙씨 셋째 세원군 김옥환·김수엽씨 셋째 유진양=15일(일) 오전 11시50분 웨딩의 전당 금호생명빌딩 30층.(아시아홀)
 부음
 ▲변충연씨 별세 동원(前 토공광주전

남본부장)·동성·동현·동일씨 부친상=발인 7일(토) 광주첨단보훈병원 장례식장 3호실. 062-973-9163.
 ▲김상탁씨 별세 남효·영미·영란·영희·혜경씨 부친상=발인 7일(토) 그린 장례식장 5분향소. 062-250-4405.
 ▲김정례씨 별세 김일상·극상·광상·두상·진숙씨 모친상=발인 7일(토) 화동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382.
 ▲송계복씨 별세 건중씨 부친상=발인 7일(토) 화동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381.
 ▲표막동씨 별세 최대기·수용·영기(전남매일 전무이사)·인기씨 모친상=발인 7일(토) 새고향 장례식장 3층 사실. 063-563-1001.

이용대-이효정, 전영오픈 8강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환상의 콤비’ 이용대(21)-이효정(28·이상 삼성전기) 조가 2009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8강에 올랐다.
 이용대-이효정 조는 6일(한국시각) 영국 버밍엄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혼합복식 16강에서 인도의 디주 발리아비탈-잘라 구타 조를 2-1로 힘겹게 눌렀다. 1세트를 21-23으로 내준 이용대-이효정 조는 2세트 역시 듀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22-20으로 승리해 균형을 맞추고 나서 3세트에서 21-14로 이겨 역전승을 거뒀다.
 이용대는 신백철과 짝을 이룬 남자복식 16강에서도 네덜란드 조를 2-0(21-11 21-7)으로 완파하고 정상을 향해 한발짝 더 다가섰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대통령배 간다

광주 춘계고교야구 우승

6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광주 춘계고교야구대회 3차전에서 광주일고가 진흥고를 5-1로 이기고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선취점은 진흥고가 먼저 뽑았다. 진흥고는 1회초 내야 안타로 출루한 선두 타자 임병훈이 4번 최용제의 희생 플라이때 홈을 밟으며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5회말 광주일고 선두타자로 나온 8번 허일이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쏘아올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진 이주호의 2루타와 3개의 볼넷으로 2점을 도망간 광주일고는 6회 상대 투수의 와이드 피칭과 수비수의 실책으로 손쉽게 2점을 추가하며 5-1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일고는 전남 동성고를 11-2 콜드승으로 제압한데 이어 진흥고를 꺾으며 춘계고교야구대회 우승을 차지,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 진출권을 따냈다.
 한편 전국소년체전 2차 예선 중등부 경기에서는 진흥중이 충장중에게 8-5 승리를 거두었고, 무등중은 동성중을 4-0으로 꺾었다. 이날 결과로 각각 2승1패 돌풍을 기록하게 된 진흥중과 동성중은 내일 오전 우승컵을 놓고 재격돌한다.
 <춘계고교야구대회 부문별 수상자>
 ▲최우수선수상=강백산 ▲우수투수상=이정호(이상 광주일고) ▲우수타수=유경국(동성고) ▲타격상=강백산(광주일고)·타수 3안타 ▲타점상=강백산(5타점) ▲미기상=강시화(동성고) ▲훈려왕=허일(광주일고)·1홈런 /김여울기자 wool@



6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2라운드에서 선전하고 있는 김미현이 티샷을 한 뒤 볼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인 박 공동선두...김미현 3위

LPGA HSBC 챔피언스 2R

새색시 김미현(32-KTF)이 시택 측원에 합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상위권으로 뛰어 올랐다.
 김미현은 6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6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다. 전날 10위 밖에 머물렀던 김미현은 중간합계 5언더파 139타를 적어내 공동선두 제인 박(22)과 플라 크리머(미국)이

상 6언더파 138타)에 1타 뒤진 공동 3위로 따라붙었다.
 1라운드 때 공동선두였던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은 4타를 잃어 공동 20위(1언더파 143타)로 밀렸지만 박세리(32)는 공동 7위(3언더파 141타)로 상위권을 지켰다. 유선영(23·휴온스)도 3타를 줄이며 공동 5위(4언더파 140타)로 뛰어 올라 우승 경쟁에 가세했다.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는 3타를 잃는 부진으로 공동 32위(1오버파 145타)로 밀려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중고자동차 전자중매인·판매
 매입·판매
 세무·법률·중개수수비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수출 차량 대안번호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하나금융투자 증권상사 (하나카드 코리아) 동화모터스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당당할 자신감!
 리얼리티 프로그램
뉴먼 남상 의원 24시간 응급
02)483-7586

화준의 "꿈" 파워마카
 파워마카 100(분당)
02)488-4114 / 02)488-3631 / 02)488-6923 / 02)488-3673 / 02)488-6454